



정답 및 해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 공통 영역

✔ 빠른 정답

1	5	2	2	3	2	4	1	5	5
6	2	7	1	8	4	9	1	10	3
11	3	12	4	13	5	14	4	15	1
16	1	17	2	18	4	19	3	20	3
21	4	22	1	23	2	24	5	25	2
26	5	27	2	28	3	29	4	30	3
31	5	32	4	33	3	34	3		

? 해설

[1~3] 독서(독서이론)

1. ⑤

⑤ 만약 한 편의 글에 원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 글을 읽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한 편의 글에서 얻지 못할 때는 다른 글을 찾아 읽음으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에 따르면, 읽을 글을 선정할 때 글의 신뢰성과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4문단에 따르면, 글의 정보를 연결하여 읽은 글에서 나타나지 않던 의미를 구성하거나 심화된 의미로 나아가는 것은 연결하기 전략이며, 이는 문제 해결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읽기에서도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전략하기, 연결하기, 조직하기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읽은 글들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전략하기 전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읽기 목적과 관련된다.

2. ②

② 2문단에 따르면, 신뢰성 평가란 글의 저자, 생산 기관, 출판 시기 등 출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그 글이 믿을 만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출판사의 공신력을 따지는 것은 글의 생산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읽을 글을 선정할 때 출판사의 공신력을 따지는 것은 신뢰성 평가를 고려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글 내용이 수행 과제와 관련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관련성 평가에 해당한다.
- ③ 관련성 평가는 글의 내용이 읽기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글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정보가 산재해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신뢰성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련성 평가에 대한 요청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신뢰성 평가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⑤ 글 내용에 목적에 맞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관련성 평가에 해당하고, 저자의 경력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신뢰성 평가에 해당한다.

3. ②

② 학생이 '동물도 재산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정보를 찾은 것은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선택하기 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4문단에 따르면, 선택하기는 읽은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전략이다. 그러므로 '동물의 그림도 예술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은 것은 <동물은 예술가>를 읽으며 선택하기 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연결하기는 읽은 글들에서 추출한 정보들을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전략이다. '동물도 재산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정보를 <동물은 예술가>에서 추출한 정보와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떠올린 것은 <동물은 예술가>와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를 읽으며 선택한 정보들로 연결하기 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조직하기는 읽은 글의 구조와 다른 구조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 글의 정보를 종합하여 인과 관계 구조로 정리한 것은, 새로운 구조로 정리하여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조직하기 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 ⑤ 3문단에 따르면, 선택하기, 연결하기, 조직하기는 반복해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에서 '동물도 재산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정보를 추출한 이후, 필요에 따라 '동물 소유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 것은 선택하기 전략을 다시 활용한 것이다.

[4~7] 독서(경영)

4. ①

① 지문은 과두제적 경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1문단: 정치 조직과 기업 경영에서 나타나는 과두제의 개념 정의
- 2~4문단: 과두제적 경영의 개념과 장단점 제시
- 5문단: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 완화를 위한 경제적 동기 부여 방안 소개
- 6문단: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 방지를 위한 공적 제도 소개

즉, 지문은 과두제적 경영이라는 대상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한 후, 그 폐해를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지문은 과두제적 경영과 관련한 여러 원리들을 분석하고 있으나,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여 제시하지는 않는다.
- ③ 지문은 과두제적 경영과 공동체적 경영을 대립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두 경영 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다루고 있지 않다.
- ④ 지문은 과두제적 경영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사례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지 않는다.
- ⑤ 지문은 과두제적 경영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거나, 과두제적 경영에 대한 상반된 해결책을 비교하여 해설하지 않는다.

5. ⑥

⑥ 4문단에 따르면,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할 경우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즉, 경영진과 다수 주주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클수록 기업 가치 훼손의 위험이 높아진다. 반대로 경영진과 다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할수록 기업 가치 훼손의 위험은 줄어든다. 따라서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에 따르면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한다. 여기서 소수는 소수의 경영진이므로,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 결정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과두제적 경영에서는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며, 이런 체제는 안정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과두제적 경영은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자로 경영진을 이루어 경영권 유지에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과두제적 경영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서 유리한 면을 점할 수 있다. 따라서 과두제적 경영에서는 경영권이 안정되어 중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과두제적 경영에서는 경영진이 사의 추구를 위해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지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과두제적 경영에서는 경영진이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 성과를 부풀릴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 ②

- ② 5문단에 따르면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즉 스톡옵션의 권리를 보유한 이는 미래의 특정 시점의 주식 가격이 계약 시에 정한 가격에 상회할 경우 스톡옵션의 권리 행사를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 한편 주식 평가 보상은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다. 주식 평가 보상권 역시 미래의 주식 가치와 경영자가 받는 보상이 연동되므로, 스톡옵션과 주식 평가 보상권은 모두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된다.

[오답 풀이]

- ① 5문단에 따르면 스톡옵션은 특정 시점 이후로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만약 행사 시점의 주가가 계약 가격보다 낮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되므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6문단에 따르면 경영 공시 제도는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공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 ④ 6문단에 따르면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경영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 ⑤ 6문단에 따르면 경영 공시 제도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사외 이사 제도는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두 제도 모두 과두제적 경영에서 경영진에게 정보와 권한이 집중되는 폐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7. ①

- ① <보기>의 X사 경영 방식을 살펴보면,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과두제적 경영 방식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X사는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가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경영 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는 점에서 과두제적 경영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정보의 권한 집중에 따른 다수 주주 이익 침해 현상은 억제될 수 있는 경영 방식을 취

하고 있다. 따라서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여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보기>에서 X사의 주주 A는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을 것을 언급한 바 있으나, 이것은 X사의 진로에 관한 대화이지 현재 X사가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다.
- ③ <보기>에서 X사의 주주 A는 X사의 경영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A를 경영 방식의 현행 유지 입장으로 볼 수 없다.
- ④ <보기>에서 X사의 주주 B는 현재의 안정적인 성과를 근거로 기존 X사 경영 방식의 유지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기존 X사 경영 방식은 주요 사항에 대해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하는 형태로, 이미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의 입장을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⑤ <보기>에서 X사의 주주 A의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는 발화를 통해 A는 현재 X사가 안정적인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8-11] 독서(기술)

8. ④

- ④ 4문단에 따르면 에틸렌 자체가 과산화물 개시제에 의해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과산화물 개시제가 열을 흡수하여 분해된 후 생성된 불안정한 원자가 에틸렌과 반응하여 중합을 개시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중합을 거쳐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단위체들은 중합을 거쳐 거대 분자를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두 개의 탄소 원자와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 에틸렌을 구성하는 두 개의 탄소 원자는 이중 결합을, 각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단일 결합을 한다. 이를 통해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모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③ 1문단에 따르면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은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3문단에 따르면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 따라서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 중 하나의 결합 세기가 나머지 하나의 결합 세기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①

- ① 중합 과정에서 성장하는 사슬의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고, 성장 중인 두 사슬이 만나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면 반복적인 반응이 종결된다. 사슬의 성장은 한쪽 끝에 생성된 불안정한 탄소 원자에 의해서만 진행되며, 사슬의 양쪽 끝에서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중합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에 의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은 끊어진다. 이로써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다른 쪽 탄소 원자는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단일 결합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단일 결합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③ 중합 과정에서는 과산화물 개시제가 분해되어 생성된 분자의 불안정한 원자가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는 것을 계기로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같은 방식으로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는 것이 반복되어 사슬이 성장하므로,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 ④ 중합 과정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 즉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

를 가진 탄소 원자의 존재로 인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각 사슬 끝의 탄소 원자끼리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됨을 바탕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함을 알 수 있다.

- ⑤ 중합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에 의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은 끊어진다. 이로써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다른 쪽 탄소 원자는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단일 결합이 된다. 이 때 생성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사슬의 성장 과정의 핵심이 되므로, 중합 과정에서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의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면서 사슬의 성장 과정을 이어 감을 알 수 있다.

10. ③

- ③ <보기>에 따르면, ㉠는 '가지를 친' 구조이고, ㉡는 '직선형' 구조이므로 ㉠로 이루어진 소재는 ㉡로 이루어진 소재에 비해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이 적을 것이다. ㉠는 가지가 친 구조로 사슬들이 조밀하게 배열되기 어려우므로 ㉡로 이루어진 소재는 결정 영역이 적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는 직선형 구조로 사슬들이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되기 쉬워 ㉡로 이루어진 소재는 결정 영역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문에 따르면 결정 영역이 많을수록 화학 물질에 덜 민감하다고 하였으므로, 화학 물질에 닿는 부분에는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5문단에 따르면, 결정 영역이 많을수록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해진다. 따라서 충격에 잘 견디게 하려면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더 적합할 것이다.
- ② 5문단에 따르면, 결정 영역이 많을수록 플라스틱은 불투명해진다. 따라서 내용물이 잘 보이게 하려면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더 적합할 것이다.
- ④ 5문단에 따르면, 결정 영역이 많을수록 밀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더 높을 것이다.
- ⑤ 지문에 따르면 결정 영역이 많을수록 열에 잘 견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열에 잘 견디게 하려면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더 적합할 것이다.

11. ③

- ③ 지문에서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에서 '접할(接觸)'은 '어떤 대상을 알게 되거나 만나게 될'라는 뜻으로 쓰였다. "나는 교과서에서 접한 시를 모두 외웠다."에서의 '접한' 역시 '어떤 대상을 알게 되거나 만나게 된'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다.

[오답 풀이]

- ① "요즘 신도시는 아파트가 대규모로 서로 접해 있다."에서의 '접해'는 '서로 이웃하거나 잇닿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그는 자신의 수상 소식을 오늘에야 접하게 되었다."에서의 '접하게'는 '사람이 소식이나 지식을 듣거나 알거나 경험하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다."에서의 '접해'는 '일정한 곳에 닿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우리 집은 공원을 접하고 있다."에서의 '접하고'는 '일정한 곳에 이웃하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2~17] 독서(인문-예술)

12. ④

- ④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 용어의 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과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를 기준으로 두 용법을 구분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쓸 경우

해당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며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 가능하다.

-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 곧 도덕 용어를 표현적 용법으로 활용한 문장은 도덕 문장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문장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③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분석적 문장을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며, 술어가 주어 개념 속에 내포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 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은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든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든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도덕 용어를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므로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에이어는 이러한 문장을 도덕 문장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그것이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본 것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13. ⑤

- ⑤ [A]에 따르면, '굴은 맛있다.'라는 문장이 조건문에 포함되어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표절은 나쁘다.'가 화자가 표절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 곧 조건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판단적 본질은 유지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A]에 따르면, 조건문의 전건으로 사용된 문장, 곧 '굴은 맛있다.'도 판단적 본질은 유지된다.
- ② [A]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실제로도 타당하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타당하다는 것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표절은 나쁘다.'가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건문에 포함되었을 때도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는 것이다.
- ③ [A]에 따르면, '굴은 맛있다.'가 조건문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상에 속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서의 판단적 본질은 여전히 잃지 않는다.
- ④ [A]에 따르면,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화자가 '굴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굴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는 없는 것이다.

14. ④

-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더라도 여전히 진리 적합성은 갖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으려 하였다. 이는 (가)의 3문단에서 에이어가 부정한 내용인,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어야 하는데,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에이어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다고 볼 것이다.
-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헝크스는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 역시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15. ①

-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 문장을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정서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은 조건문에서 에이어가 규정한 형태의 도덕 문장이 전진으로 사용되면, 해당 문장으로부터 전진 긍정식을 도출하더라도 참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곧 직관적으로 타당해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진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진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진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되어 ㉠이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진 긍정식임에도 그 참을 보장할 수 없어서, 즉 실제로 타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② ㉠의 논리에 따르면, 에이어가 규정한 형태의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진 긍정식은 두 전제 간의 의미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만약 도덕 문장이 포함하는 전진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에이어의 생각과는 달리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일 수는 없는 것이다.
- ③ ㉠의 논리에 따르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전건인 “P이다.”와 단독 진술로서의 “P이다.”의 의미가 다를 경우 전진 긍정식임에도 참이 보장되지 않는다. 즉 둘의 의미가 동일할 때에만 전진 긍정식이 타당하게 되는 것이다.
- ④ 전진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논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의 내용이다. 이때의 감정이나 태도는 화자의 선호를 포함한다.
- ⑤ ㉠은 전진 긍정식의 전건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이나 단독 진술로 쓰인 문장이나 모두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내용 차이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에서 지적하는 부분인 조건문의 전건으로서의 “P이다.”와 단독 진술로서의 “P이다.”의 의미 차이가 해소되므로, ㉠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16. ①

- ① <보기>에 제시된 예시인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는 전건과 후건이 모두 도덕 문장으로 구성된 조건문이다.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즉 <보기>는 단순히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문 전체가 도덕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가령, (나) 지문에 제시된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와 같은 문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지만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만약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선지를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덕 문장이 태도를 표현한다는 선지에 제시된 주장과 <보기>의 도덕 문장에 대한 주장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전진 긍정식이 타당한 이유로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임을 든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태도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따지고 있으므로 둘은 서로 상충한다.
-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전통 윤리학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다고 하였다. 이들은 윤리적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도덕 문장이 찬성과 반대와 같은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둘은 서로 상충한다.
- ④ (나)의 1문단에 따르면, ‘굴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기> 또한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 곧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둘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 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기> 또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둘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17. ②

- ② ‘제시하다(提示하다)’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라는 의미로서 ‘(답을) 내놓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수색하다(搜索하다)’는 ‘구석구석 뒤지어 찾다.’라는 의미로서 ‘(근거를) 찾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③ ‘전파하다(傳播하다)’는 ‘전하여 널리 퍼뜨리다.’라는 의미로서 ‘(주장을) 펼치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④ ‘발산하다(發散하다)’는 ‘감정 따위가 밖으로 드러나 해소되거나 분위가 따위가 한껏 드러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라는 의미로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⑤ ‘공개하다(公開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터놓다.’라는 의미로서 ‘(사고를) 열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8~21] 문학(고전 소설), 작자 미상, ‘이대봉전’

18. ④

- ④ 이대봉은 ㉠ ‘백운암’에서 팔 년을 의탁한 후, 부친(=이 시랑)의 유골이나마 찾고 고국의 어머니를 찾아보고자 ‘중원’으로 돌아가다가 여러 일을 겪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은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 ‘용궁’은 이대봉이 부친(=이 시랑)을 모시고 머물렀던 공간으로서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은 ‘농서’와는 다르다.
- ② ㉠ ‘황성’은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함몰한 곳이라는 점에 흉노가 침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대봉이 흉노를 처단한 곳은 ‘서릉도’이다.
- ③ ㉠ ‘해도’를 향하던 중에 이대봉과 그 아버지(=이 시랑)가 물에 빠졌다고 하였으므로, 장 소저(=장애황)의 부모인 장 한림 부부와는 관련이 없다. 장 소저(=장애황)의 제문에 따르면, 장 한림은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어 유배 간 후 걱정과 분노로 인해 병을 얻어 죽었고, 그 아내 역시 뒤따라 죽었다.
- ⑤ ㉠ ‘금릉’은 흉노를 피해 황제가 이동한 곳으로서, 이대봉이 동돌수를 죽여 위기에 처한 황제를 구한 곳이다.

19. ③

- ③ 장 소저(=장애황)의 제문에 따르면, 부친이 걱정과 분노로 병을 얻어 세상을 버린 것은 맞지만, 이대봉의 아버지(=이 시랑)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이후 이어지는 제문에 장애황이 대인(=이 시랑), 공자(=이대봉)를 찾으려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서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제문에 따르면, 부친(=장 한림)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이 시랑)과 진진지연을 맺었다고 하였다.
- ② 제문에 따르면, 양가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 섬에 유배 갔다고 하였다.
- ④ 제문에 따르면, 간적 왕희가 혼인을 강제하여 변복 도주했다고 하였다.
- ⑤ 상표에 따르면, 장 소저(=장애황)는 이대봉과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지만, 삭발 승려가 된 이 시랑의 처 양씨와 이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고 여긴다.

20. ③

③ ㉔에서 이대봉은 스스로를 '죄신', 곧 죄가 있는 신하라고 낮추어 표현하였다. 한편 ㉕에서도 장애황은 스스로를 '소첩'이라고 낮추어 표현하였다.

[오답 풀이]

- ① ㉔는 장애황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 시랑에게 올리는 글이니 망자(亡者, 죽은 사람)에게 바치는 제문이고, ㉕는 이대봉이 성상(聖上, 살아 있는 자기 나라의 임금)에게 바치는 표문이다.
- ② ㉔는 장애황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 시랑에게 올리는 제문으로서 상대의 원통함을 위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㉕는 이대봉이 임금에게 올리는 표문으로서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간신 왕희를 처벌하는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④ ㉔는 장애황은 이대봉의 부친인 이 시랑이 죽었다는 생각에 그에게 올리는 제문이다. 그런데 ㉕의 내용에 따르면 이 시랑은 죽지 않았으므로, ㉔에서 장애황이 오해했던 사건의 실상이 ㉕에서 밝혀진다고 할 수 있다.
- ⑤ ㉔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인 '장 한림의 딸 애황'과 상대인 '이부 시랑 이 공'이, ㉕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인 '죄신 이대봉'과 상대인 '황상'이 각각 서두에 나타나 있다.

21. ④

④ 이대봉이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무인절도에서 아버지 이 시랑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 이대봉은 이를 천우신조(天佑神助)라 하였으므로 비현실적의 존재가 조력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때 아버지를 구한 것은 사적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이지 흉노를 물리치는 공적 활약이 일어나는 순간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 따르면, 사적 목표는 국가 차원의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장애황은 사적 목표인 혼약을 이루기 위해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세워 국가 차원의 사건 해결에 가담하였다.
- ② <보기>에 따르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제함으로써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다. 장애황은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여 국법으로 다스린 후에 자신의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하고 있다.
- ③ <보기>에 따르면,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된다. 성상의 피신 소식에 흉노의 침입이라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이대봉이 참여하는 데에서 '충'이라는 이념, 곧 공적 가치가 해당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보기>에 따르면, 공적 활약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제함으로써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다. 이대봉은 흉노 제압이라는 공적 활약을 드러낸 후 자신의 사적 목표인 왕희의 처벌을 성상에게 요구하고 있다.

[22-26] 문학(고전시가, 고전수필), 작자 미상, '우부' / 성현, '타농살'

22. ①

① (가)에서는 '공생원'의 잘못된 행실을 열거하는 방식을 통해, (나)에서는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 군자와 소인을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각각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가)와 (나)에는 모두 대구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로 (나)의 경우,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들이 무익하다고 여겨 김을 매지 않은 것이고, / 잘 가꾸어져 뽕뽕한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매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린 것이다.' 등에서 대구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③ (가)와 (나)에는 모두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도 않다.

④ (가)에는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지 않았다. (나)에는 봄, 여름, 가을 등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긴 하나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부지런한 농부의 노력과 결실, 게으른 농부의 태만과 몰락 등을 드러내기 위해 제시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가)에는 해학적 표현보다는 풍자적 표현이 주로 쓰였으며 '공생원'이란 인물은 주변인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나)에는 해학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23. ②

② '공생원'은 ㉠ '처자식'을 이리저리 훑어 놓아, '어린 딸'은 백 냥을 받고 혼인 핑계로 팔아넘기고 '아낙'은 친정으로 보내며 '자식들'은 머슴살이를 시키는 인물로 그려진다. 재물을 모아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길 원하는 대상으로 볼 근거가 없다.

[오답 풀이]

- ① '공생원'이 ㉡ '음양술수'에 현혹되어 밋자리를 이장(移葬)하거나 이사를 다닌다고 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공생원'이 ㉢ '칭질'하는 대상이 재상이, 곧 높은 벼슬아치 가문이라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공생원'이 ㉣ '핀잔'을 들은 이유가 집이나 토지 등을 흥정하여 구문(口文, 흥정을 통해 보수로 받는 돈) 먹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공생원'이 ㉤ '감언이설'을 통해 부자를 후리(=매력으로 남을 유혹하여 정신을 매우 흐리게 하다.)려 한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24. ⑤

⑤ ㉔ '게으른 농부'는 '김을 매도 죽을 것'이라고 하였고, ㉕ '선비들'은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으므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㉔ '공생원'이 '큰길가에 새주가며 노름판에 푼든 떼기' 했음을 통해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음은 알 수 있으나,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인물은 ㉕ '게으른 농부'가 아니라 봄, 여름에 충실히 일하여 가을에 결실을 얻은 '부지런한 농부'이다.
- ② ㉔ '공생원'은 '제 아버지 덕분에 돈천이나 가진 바 있으므로 부모의 혜택을 받은 인물이며, ㉕ '선비들'은 분수를 알아 배움의 한계를 느낀다고 보다는 '공명'과 '부귀'가 분수와 운명에 달려 있다고 보는 인물들이다.
- ③ ㉔ '공생원'이 '혼인 중매 선채 돈'으로 인해 창피를 당한 것은 알 수 있으나, ㉕ '선비들'이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했을 뿐 수치를 당한지는 확인할 수 없다.
- ④ ㉕ '게으른 농부'가 가물에 김매기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비웃음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일하는 다른 농부들을 비웃었다. ㉕ '선비들'은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 솜씨를 겨루어' 보았으나 여러 번 떨어지자 결국 포기하여 공명을 이루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25. ②

② (나)에는 글쓴이가 관찰한 사실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과 주장만 나타나 있을 뿐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의 말이 직접 인용되어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짓기 힘든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파산의 들판에서 목격한 농부들의 상반된 모습에 대하여 글쓴이가 마을 노인에게 묻자 그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글을 마무리하며 소인을 깨우치려는 목적으로 글을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농사와 관련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을 학문에 까지 확장하고 있다.

26. ⑤

⑤ <보기>에 따르면, (가)에는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가 드러나는데, 실제로 (가)에서는 공생원의 말로를 '부지거져 나간 후에 소문이 들었던가'라고 표현함으로써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나)에서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하는 대상은 게으른 농부가 아니라 학문을 하는 선비이다. 이는 이로움이 작은 일을 농사로, 이로움이 큰 일을 학문에 각각 대응시킨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 따르면 (가)에는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가 나타난다. (가)에서 비판의 대상인 공생원은 노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얻기보다 요행으로 '공것'과 '뜬재물'을 바라는 인물로 그려진다.
- ② <보기>에 따르면,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나)에서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는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뭍 수가 없'는 농경에 부적합한 현실에 당면하여 서로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③ <보기>에 따르면, (가)에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가)에서 공생원이 저지르는 '공납' 유용은 국가의 규범을 어기는 행위이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나)에는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히 해결하는 자세가 아닌 운명론적 태도가 나타난다. (나)에서 게으른 농부가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한 데에는 김을 매든 매지 않든 어차피피가 오지 않아 모두 죽을 것이라는 예단이 담겨 있다.
- ④ <보기>에 따르면, (가)에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태도가 그려진다. (가)에서 공생원은 '돈천이나 가졌'음에도 '친구 대접'조차 한 적 없는, 물욕으로 가득 찬 인색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나)에서 부지런한 농부는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함으로써 농경에 불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긍정적 인물로 그려진다.

[27~30] 문학(현대소설), 임철우, '아버지의 땅'

27. ②

② ㉠에는 서술의 주체가 '나'인 것이 표지로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헛헛은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 잿빛으로 보이는 '사위' 등을 지각하는 주체 역시 '나'이므로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작중 인물이 스스로를 '나'라고 지칭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으므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는 1인칭 시점의 소설이다. ③ ㉡의 주어는 '그 건'으로서 '그 사내'이다. '그 사내'는 '나'의 지각 대상이며, 이를 통해 '나'보다 '지각 대상'이 부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④ ㉢은 '어머니'라는 인물의 발화를 특별한 인용 부호 없이 서술한 것으로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⑤ 누구의 '시야가 부영계 흐려왔'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웬 사내'가 지각의 주체인지, '나'가 지각의 주체인지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28. ③

③ ㉠ '한마디'는 어머니의 말로서 '나'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남은 것으로 서술된다. 이는 어린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 죄'를 나누어지게 하였고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로 만들었다. 이후 '나'는 어른이 되어서까지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므로, ㉡는 이야기의 긴장감을 형성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 '한마디'는 유해 발굴 및 매장이 끝나고 벌어진 조촐한 술판에서 나누는 농담 섞인 말로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받쳐 든 '나'에게 떠오른 어머니의 이야기와 아버지의 환영,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나'의 변화된 태도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29. ④

④ ㉠ '쭈부쟁이와 엉경퀴꽃'에서 연상된 상황은 '아버지'가 어디선가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는' 상황, 즉 아버지의 죽음이다. ㉡ '날짐승'에 투영된 염원은 '사내'가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 즉 아버지의 귀환이다. ㉢ '쭈부쟁이와 엉경퀴꽃'에서 연상된 상황(=아버지가 이미 어디선가 죽어 있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 '날짐승'에 투영된 염원(=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의 실현 가능성은 사라진다.

[오답 풀이]

- ① '어머니'는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것처럼 아버지도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맥락에서 ㉡ '날짐승'을 말한 것이다. ㉢ '날짐승'은 '어머니'가 자신의 염원을 이야기하기 위해 근거로 든 것이지, 실제로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아버지의 부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 ② ㉡ '날짐승'은 '어머니'가 자신의 염원을 이야기하기 위해 근거로 든 것이므로 시간과 공간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할 수도 없다.
- ③ ㉠ '쭈부쟁이와 엉경퀴꽃'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것이 '나'가 원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
- ⑤ ㉡ '날짐승'과 ㉢ '쭈부쟁이와 엉경퀴꽃'은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것을 관념적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문에는 이념에 편향되어 있는 인물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30. ③

③ '노인'과 '어머니'가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도록 의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노인'은 유해를 수습하고 있을 뿐이며 그 장면을 보던 '나'가 이전에 '어머니'가 물 사발을 올리던 것을 떠올린 것이다. '노인'이 '줄 묶음'을 '내던지'는 장면과 '어머니'가 '물 사발'을 올리던 것을 '나'가 떠올리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에서는 노인과 함께 유해를 수습하는 경험이 '나'에게 기억 재응고화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유년의 '나'에게 남겨진 충격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낙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에서 성인이 되어서도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아버지'와 관련해서 '나'가 받았던 충격이 '낙인'으로 남아 있고, 끝끝내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에서 '아버지'에 관한 기억(=부정적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어 심리적 불안정이 빚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 ④ '나'는 '노인'과 함께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모래밭'에서 '어머니'의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을 환영으로 보게 된다. 아버지에 대한 '나'의 부정적 기억이 '노인'과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구성된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을 환영으로 보는 것은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나'의 서술은 지문 전반부에서 '무서운 환영', '저주', '낙인' 등과 같이 표현했던 것과는 달라진다. 따라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부정적인 기억(=아버지에 대한 유년의 기억)이 재구성되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가는 경위를 엿볼 수 있다.

[31~34] 문학(현대시), 이기철, '청산행'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31. ⑤

⑤ (가)는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했다고 볼 수 있다. (나)에는 '참새', '들국화'와 같은 자연물이 나타나긴 하지만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순결해'진 '때까지', '맨살 비비는 돌들'과 같이 인격화된 대상이 나타나며 이들은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일 뿐'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가 '청산'에 와 '길을 가'는 것에서 공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가)의 화자는 '길을 가'면서 '상수리 열매', '여울물', '때까지'와 같은 자연물들을 포착하는데 이들을 통해 자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화자가 차를 앞에 놓고 홀로 마시고 있는 상황만 나타날 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④ (나)에서는 '나'의 반복을 통해 화자를 거듭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화자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32. ④

- ④ ㉠ '관습들'은 '서른 번 다져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대상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갈등이 내포됨을 알 수 있고, 이는 화자가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이유가 된다. (나)의 화자는 차를 마시는 것은 '답답한 사실'이자 '고즈넉한 관습'이라고 말한다.

[오답 풀이]

- ① ㉠ '관습들'은 화자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대상일 뿐, 화자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화자가 이를 그리워한다고 볼 수도 없다.
- ② (나)의 화자가 홀로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은 맞으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 ③ 피안은 죽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관념적으로 생각해 낸 현실 밖의 세계 등을 뜻한다. (가)의 화자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것이지 피안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또한 (나)의 화자는 존재의 인식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안식을 지향한다는 표현도 성립하기 어렵다.
- ⑤ (가)의 화자는 자기 연민을 하고 있지 않다. 화자는 자연에 동화되고 친숙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길만한 상황이 아니다.

33. ③

- ③ '세파'란 '모질고 거센 세상의 어려움'이라는 뜻이다. '돌들'은 자연에 있는 요소로 그들과 함께 누워 잠들고 싶다는 화자의 바람은 자연에 동화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구간이다. 즉, '돌들'이 세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청산에 와 발을' 풀고 나서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고 말한다. 이전에 '흐리던' 산길이 이제는 '잘 보인다'는 말을 통해 '산길'이 이전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는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른다. '고민의 양식'에서 '한 가정'의 상황과 처지를 내포하는데 이것이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로 피어오른다고 하였으니 '한 가정'의 상황과 처지를 시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화자가 차를 마시는 행위가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겁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화자가 원해서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이제는' '바로 이때'라는 뜻으로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화자가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이라고 서술한 것에서 화자의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이 내포되어 있다.

34. ③

- ③ (가)에서 '청산에 와'서 '발을 푸니' '산길'이 잘 보인다는 것은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오니 자연이 잘 보인다는 의미로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를 드러낸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절대자 자체를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세계 인식의 준거로서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는 것이다. 또한 (나)의 화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

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인식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도 찾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은 화자가 '쓰다 둔' 대상이자 '버린' 대상이라는 점에서, 떠나온 세속의 일상에 대응된다. 세속의 일상을 표상하는 소재들을 떠올린다는 것에서 아직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화자는 '차를 마시는 것'은 다만 사실일 뿐이라고 시상을 시작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차를 마시는 것)에 기초하여서만 존재를 인식하겠다고 말한다. 즉, 화자가 차를 마시는 행위와 그것을 '다만 사실'과 '관습'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화자의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 4연에서 화자는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을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확장한다. 따라서 이는 '차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를 인식할 때 경험적 사실만을 근거로 삼겠다는 표현이다.
- ④ (가)에서 '여울물'과 '순결해'지는 '때까지'에는 화자의 정서가 투사되어 있다. (나)의 화자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이 누구의 시킴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즉 그것은 다른 존재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며, <보기>를 고려하였을 때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 ⑤ (가)에서 '돌들'과 함께 누워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는 것이 자연의 요소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을 고려하면 이는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나)에서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혹은 다른 인식의 준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일 뿐'이라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만 기초하여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 화법과 작문 영역

✔ 빠른 정답

35	③	36	④	37	⑤	38	①	39	⑤
40	④	41	⑤	42	②	43	④	44	③
45	②								

? 해설

[35~37] 화법

35. ③

③ 발표자는 “급식에 나온 김자반 맛있게 드셨나요?”라고 질문하며 김자반에 대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이는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식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발표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청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 ② 발표자는 발표 중간에 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있다.
- ④ 발표자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발표 순서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
- ⑤ 발표자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36. ④

④ 시각 자료인 [자료1]은 ㉠에서 지주식 양식 방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료2]은 ㉡에서 부류식 양식 방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되었다. [자료2]의 김은 물에 잠겨 있는데, 이를 통해 부류식 양식 방법은 김이 바닷물에 잠겨 있어 생장이 빨라 지주식 양식 방법에 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에서 활용된 [자료1]은 지주식 양식 방법의 모습으로, 김발 뒤집기는 부류식 양식 방법 중 갯병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작업으로, 노출 부류식 양식 방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 ② 갯병에 취약하다는 설명은 ㉡의 부류식 양식에 대해 언급되었으나,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 1]이 활용되지는 않았다. [자료1]은 지주식 양식 방법의 모습이다.
- ③ 밀물과 썰물의 반복으로 살균 작용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지주식 양식 방법의 특징이며, 이를 시각화하여 보여주기 위해 ㉠에 활용된 것은 [자료 2]가 아니라 [자료1]이다.
- ⑤ 지주식 양식 방법과 부류식 양식 방법은 모두 김발을 사용하므로, 두 양식 방법을 구별하는 요소가 김발의 유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37. ⑤

⑤ ‘학생 3’은 김 양식에 대한 발표를 듣고 다른 해조류의 양식 방법이 김 양식과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하며, 이에 대해 알아볼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즉 발표 내용을 토대로 발표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고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학생 1’은 김이 광합성을 하는 것과 맛과 품질이 좋아지는 것의 인과 관계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 중 우리 김의 수출 성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학생 3’은 발표와 관련하여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인 해조류 양식에 관한 정보를 찾아봐야겠다고 반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 내용을 통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김이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학생 1)와 ‘어류만 양식하는 줄 알았다.’(학생 3)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8~42] 화법, 작문

38. ①

① 전파 식별 시스템 도입으로 장서 점검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학습 관련 도서를 눈에 띄는 곳에 별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도서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은 전파 식별 시스템 도입 건의 전에 기대했던 효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전파 식별 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증이 없을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증 없이 도서를 대출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전파 식별 시스템 도입 건의 전에 기대했던 효과로 볼 수 없다.
- ③ 부원 2의 “자가 대출 반납기를 사용하게 돼서 점심시간 말고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게 된 덕분”이라는 언급을 통해, 건의 이전에도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파 식별 시스템 도입 건의 전에 기대했던 효과로 볼 수 없다.
- ④ 서가와 책상 동선을 개선했다는 내용은 대화에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동선을 고려한 서가와 책상의 배치로 도서를 편안하게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전파 식별 시스템 도입 건의 전에 기대했던 효과로 볼 수 없다.
- ⑤ 도서관 소식 관련 게시판 활성화를 기대 효과로 언급한 부분은 없다. 따라서 도서관 소식을 전하는 학교 누리집 게시판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은 전파 식별 시스템 도입 건의 전에 기대했던 효과로 볼 수 없다.

39. ⑤

⑤ [B]에서는 ‘부원 3’이 문제를 제기하고 ‘부원 2’가 해결책을 내자 ‘부원 1’이 이를 재진술하며 동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원 1’은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해 타협점을 찾아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부원 2’의 의견에 보충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에서 ‘부원 1’은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 ‘부원 1’은 ‘그렇지 않나?’라며 다른 부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② [A]에서 ‘부원 2’는 ‘부원 1’에게 동의를 표하며 학생들의 반응을 근거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B]에서 ‘부원 3’은 학생들의 인식 부족이라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④ [B]에서 ‘부원 2’는 안내문 작성이라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으며 부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40. ④

④ ㉢의 내용을 담은 ‘도서 분실 방지 장치 작동 중’이라는 메모가 안내문에 반영되었으나, 경보음 발생 시 대처 요령은 안내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의 내용인 ‘여러 권 동시 대출 및 반납 처리’는 안내문에서 대출 및 반납시 대기 시간 단축으로 구현되었다.
- ② ㉡의 내용인 ‘장서 점검기 활용의 이점’은 도서 정리 및 배치 개선을 통한 도서 접근성 향상으로 안내문에 반영되었다.
- ③ ㉢의 내용인 ‘도서부원 없이도 대출 가능함’은 과거에는 도서부원이 있어

야만 대출이 가능했다는 내용과 대비를 이루며 안내문에 포함되었다.

- ⑤ ㉔의 내용인 '도서관 행사'는 '추천 도서 소개', '도서 속 보물찾기' 등으로 행사의 종류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안내문에 반영되었다.

41. ⑤

- ⑤ '자가 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은 이용 절차를 단계별로 소개하는 순차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는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수월해진 대출 반납'은 길게 줄 서는 일 없이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내용상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서술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 ②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③ '수월해진 대출 반납'과 '대출 가능 시간 확대' 모두 과거의 불편함은 언급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보다는 개선된 현재의 모습 소개에 치중하고 있다.
- ④ '새 단장 기념 행사'는 특정 현상의 원인이나 결과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42. ②

- ② 안내문의 도입부에 '전파 식별 시스템 도입으로 달라진 우리 학교 도서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안내문을 작성한 목적을 밝히고 있으므로, (나)에 글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안내문에는 각 항목별 소재목은 있으나 전체 제목은 없으므로 제목을 달 것을 제안한 것은 적절하다.
- ③ 대출 시간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안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시간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완하자는 의견은 타당하다.
- ④ '대출 가능 시간 확대' 항목 아래 '도서관은 앞으로 책 읽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라는 문장은 해당 소재목과 내용상 큰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삭제할 고려해 볼 만하다.
- ⑤ 도서관 이용 방법을 글 외에 그림으로도 안내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제안이라 할 수 있다.

[43~45] 작문

43. ④

- ④ 초고에서는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중 지역 청소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고 그에 대한 홍보 역시 미흡함을 밝히고 있으나, 홍보가 미흡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고택 주변의~좋겠다고 생각했다."를 통해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참여 소감을 밝히고 있다.
- ② 2문단에서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대신해 사용하게 된 명칭임을 밝히고 있다.
- ③ 2문단에서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의 정의를 "국가유산을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⑤ 6문단에서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을 통해~안목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며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

44. ③

- ③ [A]에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유의한 점이 들어가야 한다. 설문 조사 자료 ㄱ을 바탕으로 주변정화, 모니터링, 홍보 활동이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종류로 제시할 수 있으며, 설문 조사 자료 ㄴ을 바탕으로,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설문 조사 자료 ㄴ에서 진로 탐색과 봉사 의 보람의 비율이 높지 않지 않으므로 이를 유의함의 핵심으로 내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
- ② 국가유산에 대한 자부심 함양은 제시된 두 설문 조사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 ④ 활동별 중요도나 만족감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주어진 설문 조사 자료들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⑤ 유의함에 대한 언급 없이 활동 소개에만 그치고 있어 적절한 자료 활용이라 보기 어렵다.

45. ②

- ② 고쳐 쓴 글에서는 '친구 1'의 의견을 수용하여 학교에서의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관련 교육 내용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앞 문단에서 제기되었던 교육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수정 전 초고에도 지자체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 촉구 내용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 ③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내용을 남겨둔 것은 '친구 1'이 아닌 '친구 2'의 조언, 즉 글의 통일성에 부합하는 내용을 살리자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④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의 필요성은 글의 다른 부분에서 중복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요소로 볼 수 없어 삭제할 이유가 없다.
- ⑤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참여 방법은 초고의 2문단에 이미 소개된 내용이라 글의 주제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글의 주제와 상관이 없어 서가 아니라 초고의 2문단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기 삭제된 것이다.

언어와 매체 영역

빠른 정답

35	④	36	⑤	37	①	38	①	39	③
40	②	41	②	42	④	43	②	44	⑤
45	⑤								

해설

[35~36] 언어

35. ④

④ ㉠ ‘무슨’은 명사 ‘일’을 수식하는 관형사로서 ‘일’ 뒤에 결합한 보조사 ‘이든’의 의미로 보아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한 부정칭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 ‘언제’는 동사 ‘보다’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동사 어간 ‘보-’에 결합한 연결어미 ‘-아도’의 의미로 보아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한 부정칭이다.

[오답 풀이]

- ㉠ ‘얼마’는 서술격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쓰인 명사로서 ‘이 과일 한 상자’의 가격을 몰라서 쓴 미지칭이다.
- ㉡ ‘어떤’은 명사 ‘분’을 수식하는 관형사로서 ‘밖에’ 온 사람을 몰라서 쓴 미지칭이다.

36. ⑤

⑤ ㉠ ‘여보세요’는 ‘여봐요’의 높임말로써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감탄사로서 호칭어이다. 이는 화자인 아빠가 친족 관계에 있는 청자인 아들에게 말하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서, 아들이 이모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음을 일깨우려는 특수한 의도에서 사용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 ‘엄마’는 아들이 엄마를 부를 때 쓴 말이므로 호칭어이다. 그리고 ㉡ ‘김수진 님’ 역시 아빠가 엄마를 부를 때 쓴 말이므로 호칭어이다. 물론 ㉠과 ㉡는 모두 엄마를 동일하게 가리킨다.
- ② ㉠ ‘이모’와 ㉡ ‘이모님’은 모두 사람을 가리켜 이를 때 사용하는 지칭어로서 ㉠의 경우에는 조카-이모 관계이고, ㉡의 경우에는 제부-처형 관계이므로 대상은 동일 인물이나 화자가 달라 화자와 대상의 친족 관계가 서로 다르다. 그런데 ㉢는 ㉠ ‘이모’에 접미사 ‘-님’이 결합한 복합적 형식이므로 둘은 같은 형식의 지칭어라 할 수 없다.
- ③ ㉠ ‘김수진 님’과 같은 형태의 말은 공적 관계에 있고 격식적 대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호칭어이지만, 주어진 내용은 부부 사이라는 사적 관계에 있으면서 비격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 ④ ㉠ ‘이모’는 사람을 가리켜 이를 때 사용하는 지칭어이며, ㉡ ‘김 선생님’ 역시 동일 인물을 가리키는 지칭어이다. 그런데 이는 ㉠과 같은 공적 관계에 있고 격식적인 대화 상황의 예시와 무관하다. 아빠가 아들의 요구가 무리함을 일깨우려는 맥락에서 하는 말로서 특수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37. ①

① ‘계시다’는 주어(할아버지는)와 부사어(형님 댁에)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관계 관형사절인 ‘여객선이 도착한’은 원래 ‘여객선에 항구에 도착하다’이므로 ‘도착하다’ 역시 주어(여객선)와 부사어(항구에)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풀이]

- ② ‘그지다’는 주어(불평이)를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그런데 ‘내리다’는 주어(그는)와 부사어(배에서)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만들다’는 주어(나는)와 목적어(이 호박을), 부사어(죽으로)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런데 ‘새우다’는 주어(아버지는)와 목적어(밤을)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④ 관계 관형사절인 ‘얼음으로 된’은 원래 ‘성이 얼음으로 되다’이므로 ‘되다’는 주어(성이)와 부사어(얼음으로)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런데 ‘아니다’는 주어(그는)와 보어(남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⑤ 형용사 ‘지나치다’는 주어(그의 신중함은)만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그런데 관계 관형사절인 ‘간이역만 지나치는’은 원래 ‘기차가 간이역만 지나치다’이므로 동사 ‘지나치다’는 주어(기차가), 목적어(간이역만)을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38. ①

① ㉠ ‘실없네’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시럽네]가 됨으로써 비음화(㉢)가 일어나 [시럽네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 ‘깊숙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김수기]가 됨으로써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김수기]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해야 한다.
- ③ ㉠ ‘짓밟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진밟지]가 됨으로써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진밟지]가 되며,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진밟지]가 됨으로써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진밟찌]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하거나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해야 한다.
- ④ ㉠ ‘겪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겪는]이 됨으로써 비음화(㉢)가 일어나 [겪는]으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해야 한다.
- ⑤ ‘훑고’는 현행 교육 과정과 <보기>의 내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실제로 [훑고 → 훑고 → 훑꼬 → 훑꼬]의 과정을 거쳐 ‘훑고’는 [훑꼬]로 발음된다. 이때 [훑고 → 훑꼬]를 ‘교체’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정의에는 어긋나기 때문이다.

39. ③

③ ‘다’를 ‘多’로 적고 ‘다’로 읽는다면 이는 본뜻을 무시한 채 음으로 읽은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불’을 ‘火’로 적고 ‘불’로 읽는다면 이는 본뜻을 유지한 채 훈으로 읽은 것(㉡)이다.
- ② ‘흙’을 ‘土’로 적고 ‘흙’으로 읽는다면 이는 본뜻을 유지한 채 훈으로 읽은 것(㉢)이다.
- ④ ‘옷’을 ‘衣’로 적고 ‘옷’으로 읽는다면 이는 본뜻을 무시한 채 훈으로 읽은 것(㉣)이다.
- ⑤ ‘을’을 ‘乙’로 적고 ‘을’로 읽는다면 이는 본뜻을 무시한 채 음으로 읽은 것(㉤)이다.

[40~45] 매체

40. ②

② ㉠에는 ‘독도 바다사자’의 그림 이미지와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복원 움직임’이라는 문자를 함께, ㉡는 독도와 베링해를 잇는 선을 그린 지도 이미지와 ‘다만, 베링해 등에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개체군을 찾아서 들여오는 방식’으로의 복원은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도 내용과 관련된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한 복합 양식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취재 현장에서 보도하는 영상이 아니다.
- ② ㉡은 인터뷰 영상이 아니다.
- ③ ㉢~㉣에는 모두 화면 오른쪽 상단에 미세 먼지와 관련된 일상생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 화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④ ㉤~㉥은 모두 진행자와 기자, 전문가가 한 말이나 그 요약 내용이 하단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추가 정보를 제시한다고 할 수 없다.

41. ②

- ② '행복이'가 '지역 어민 대표'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이해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다량미'는 '가까운 개체군을 찾아서 들어오는 방식'이라는 전문가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우리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 ② '강지킴'은 '서식 환경의 적합성'과 관련된 관계자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기후 변화로 인해 '복원에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 ③ '보리보리'는 '일제 강점기 남획으로 인하여' 독도 바다사자가 멸종되었다는 '기자'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어로 금지 구역 설정 등의 보존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 ④ '독도사랑'은 '지역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는 '진행자'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제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점을 들며 그것이 실제 사실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2. ④

- ④ '-고'는 어떤 사실을 나열하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로서, 인간과의 충돌 가능성이 작다는 내용, 서식 환경이 적합하다는 내용 등 복원이 수월한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보조사 '는'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② 보조사 '만'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연결 어미 '-다가'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 다른 일이 이루어지는 원인이나 근거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④ 피동사 '전망되다'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는 ㉢에 나타난 전망의 주체를 숨기는 기능을 한다.

43. ②

- ② '행사 내용'이란 제목과 그 아래 나열된 내용은 같은 글자 크기와 굵기로 제시되었다.

[오답 풀이]

- ① 오른쪽 하단에 QR 코드가 있다.
- ② '독도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한 독도 바다사자 복원!!'이라는 제목이 글 상자에 담겨 상단 중앙에 제시되었다.
- ③ '독도의 옛 모습을 다시 찾을 때까지 우리 함께합시다.'라는 학생의 말은 청유형 문장이다.
- ④ 독도를 배경으로 독도 바다사자가 헤엄치는 모습이 이미지로 제시되었다.

44. ⑤

- ⑤ '서형'이 '영상 공유' 기능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슬라이드 자동 넘김'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민진'에게 그 사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오답 풀이]

- ① '나영'은 '수민'을 위해 회의를 녹화해서 파일로 저장한다고 하였다.
- ② '지현'은 학생회 사회 관계망 서비스 게시판 주소를 보내주었다.
- ③ '민진'은 소회의실을 만들어 회의 시간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 ④ '은준'은 귓속말 기능을 통해 '나영'에게 '수민'의 안부를 묻고 있다.

45. ⑤

- ⑤ '은준'의 제안에 따르면 '쪽지 보내기(㉢)'는 수신자 휴대 전화에 알림이 가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접속해야만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 '최종 시안'에서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 바로 가기'와 '쪽지 보내기'는 서로 구분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서형'의 제안에 따라 '학교 누리집 바로 가기(㉠)' 메뉴가 추가되었다.
- ② '은준'의 제안에 따르면 '나의 방(㉡)' 메뉴에 계정 주소 입력 공간을 만들어 거기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지현'의 제안에 따르면 '나의 서재(㉢)'에는 본인인 쓴, 간직하고 싶은 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④ '윤하'의 제안에 따르면 '행사 사진(㉣)'에서는 시간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사진을 볼 수 있게 '슬라이드 자동 넘김' 기능이 추가되어 있을 것이다.